

‘과잉된 민족’과 ‘찾을 수 없는 개인’:

일민주의와 한국 민족주의의 특수성

홍태영 | 국방대학교

이 글은 식민지의 경험 그리고 냉전과 분단 등으로 인해 형성된 한반도에서의 민족주의의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해방 이후 제1공화국에서 등장했던 일민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민주의는 제1공화국 시기 민족주의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일민주의는 개항과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등장한 민족주의의 연장선상이자 변형일 수 있다. 또한 제1공화국이 무너진 뒤에서 박정희 시기 이후 한국 민족주의 역시 그러한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민주의의 출발은 몇 개의 파편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글이었지만, 이후 다양한 전국적인 조직과 자유당이라는 핵심기구 그리고 이승만의 이상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틀을 갖추면서 한국적인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져 갔다. 동질성이 강조된 일민으로서 민족과 이상화된 영도자 이승만이 결국 동일시(identification)의 과정을 통해 단일체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서구에서 보였던 전체주의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민족 개념의 과잉과 개인 및 개인주의의 미발달에 기인한 시민계층의 취약은 한국적 파시즘의 토양일 수 있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시민은 아직까지 민주주의적 주체로 성장하지 못했거나 혹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피의 억압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기에 이승만은 국민을 대상화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고, 일민주의는 그 과정에서 탄생한 회화적이고 몰역사적인 이데올로기였다.

주제어: 일민주의, 민족주의, 전체주의, 이승만, 민주주의

I. 들어가는 말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nation-state)의 형성 과정은 국가형성(state-building)과 국민형성(nation-building)이라는 두 과정의 불균등 발전과 그 결합의 역사였다. 중세의 봉건적 영주 지배 체제, 혹은 제국적 지배 혹은 도시공동체 형

태의 정치체들의 경쟁은 15~6세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근대 국가 형태가 지배적인 것으로 귀결된다. 군사적 독점과 집중화, 조세권의 확립을 통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형성은 근대국가의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근대의 세 개의 혁명은 국민주권의 원칙 속에서 국가형성과 국민형성 과정을 결합시키는 계기였다. 그리고 19세기 유럽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맞물려 근대 국민국가 형태를 확고히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는 민족주의였다. 민족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국민적 정체성을 부여하였고, 그들이 '상상의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한 집합적 개인들인 국민은 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의 실행자로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주체로서 확정되었다.

이들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과정에서 제3세계와의 대면이 시작되었고, 제3세계 나라들은 만국공법의 질서에 편입되면서 민족주의의 움직임은 갖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민족주의의 출현은 1876년 개항과 함께 중화주의적 질서로부터 벗어나 만국공법의 질서에 편입되면서부터이다. 제3세계에서 민족주의는 개인 및 개인주의의 발달 이전에 민족이라는 거대담론의 출현 혹은 민족이라는 정치적 주체의 형성과 이후 그 민족을 구성하는 개인의 형성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서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식민지적 특수성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국주의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국민국가 건설의 급박한 과제 속에서 민족이 호명되고 동원의 대상이 된다. 더구나 한반도의 경우 냉전의 시작과 동시에 미소 두 나라가 부딪히는 경계선에 있었던 탓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극한적인 형태를 띠었다. 미소 두 개의 이데올로기와 그 첨병들이 부딪히고 1950년의 한국전쟁은 한반도에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식민지의 경험 그리고 냉전과 분단은 한반도에서 민족주의의 특수성을 결정하였다. 이 글은 한반도에서의 민족주의의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해방 이후 제1공화국에서 등장했던 일민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민주의는 제1공화국 시기 민족주의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일민주의는 개항과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등장한 민족주의의 연장선상이자 변형이다. 또한 제1공화국이 무너진 뒤에서 박정희 시기 이후 한국 민족주의 역시 그러한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한반도에서 우파 민족주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한 좌파 민족주의 역시 그러한 특수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일민주의에 대한 연구는 이승만의 다른 분야 혹은 제1공화국의 연구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

지는 않다.¹⁾ 일민주의 자체가 정교한 이론이나 철학 혹은 이데올로기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의 영향력이 지대하지도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이승만의 일민주의의 내용과 형태, 작동기제 등을 살펴 보면서 한반도에서 민족주의의 역사가 갖는 특수성을 찾고자 하며, 그러한 가운데서 일민주의가 갖는 위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굴곡된 네이션의 형성: 식민과 분단²⁾

근대국가로의 전화를 시도하던 고종이나 개화파들에게 ‘민’은 항상 통치나 계몽의 대상으로 존재하면서 주체적 역량 발휘의 길이 차단되었다. 이후 자생적 그리고 자주적 국민국가 형성의 길이 좌절되고 조선이 이제 일본에 의한 보호국에 이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은 지속적으로 통치와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되었

-
- 1) 일민주의에 대한 초기의 연구로서 김혜수(1995)는 일민주의를 이승만의 통치이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통치이념과 조직 등의 연관성 등을 규명하고 있다. 서중석의 연구(1996: 1998: 2005)는 일민주의와 파시즘과의 관련성, 자유당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면서 이승만의 일민주의가 갖는 특수성과 한국 민족주의와의 연관성 등을 다루고 있다. 김수자의 연구(2004: 2005a: 2005b)는 일민주의가 갖는 체계성과 그것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특징을 잘 연관짓고 있다.
 - 2) 한반도에서 국민/민족으로 번역되는 nation의 형성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에 대한 근대주의적 입장(켈너, 앤더슨/ 또한 차별적으로 홉스봄)과 원형주의 그리고 두 가지 입장을 극복하고자 종족적 상징주의 개념을 제시하는 스미스(A. Smith)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의 경우를 비취본다면, 한반도에서 원형민족주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던컨(Duncan 1998)은 홉스봄의 개념을 토대로 언어, 종족, 종교, 정치체라는 4가지 축에서 원형민족주의를 찾고 있다. 또한 근대주의적 입장—임지현(1999), 권혁범(2000) 등—역시 충분한 논거를 갖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근대적 주체로서 개인/시민의 형성과 그에 결합한 새로운 정치체와 국민/민족의 형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신기욱(2009)의 지적처럼 한민족이 근대적이냐 시원적이냐의 논쟁은 무의할 수 있다. 네이션 개념 자체가 서구의 근대적 개념이며, 그것이 수입되면서 한반도에 근대적 정치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히 위정척사운동과 관련한 ‘봉건적’ 내셔널리즘이라는 말은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cf. 김영작 2006; 이재석 2006).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며, 이 글은 일민주의를 통해 한국 민족주의의 특수성을 보는데 한정한다.

다. 식민지 조선에서 문명국으로의 길, 국권회복, 독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주도했던 많은 지식인들과 부르조아들에게 ‘민’은 우선 동원의 대상으로서 설정된다(김동택 2003; 박주원 2004).

개화기 지식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설립하는 문제였다. 많은 부분 한국에서 서구의 이론이 수입되는 과정은 우선은 한국적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그 필요성으로부터 유추될 수밖에 없다. 한말의 지식인들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국민국가의 주체로서 민족(nation)을 확립시키는 것이었다. 서구에서 근대 정치의 출발점, 즉 홉스, 로크의 예에서 드러나듯이 그 출발점에는 자유로운 개인이 있었고 그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공동체가 유추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 그 순서는 반대였다. 서구의 정치제도나 사회제도를 수입하고 이식하려는 시도들은 개인의 자유나 독립의 확정이라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문제설정이 아니라, 근대적 국가의 성립이 우선이었고 이후 정치적 주체로서 국민의 건설이라는 문제설정이 이어졌다. 당시의 지식인들의 문제의식은 개항과 함께 밀려오는 서구 세력에 대항하여 가능한 빨리 서구적 제도를 도입하고 그를 통해 그들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그들을 능가하는 제국주의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박노자 2005). 따라서 새로운 근대적 주체로서 개인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설정은 이차적이었다. 이것이 한국 자유주의 나아가 한국 근대 정치의 원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과도한’ 강조의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근대성에 대한 민족주의의 규정력은 다른 무엇보다 강한 것이었다.³⁾

유길준, 박영효, 김옥균 등의 초기 개화파의 논의에서부터 1905~1910년 사이의 자강운동론, 1910년대 실력양성론과 구사상·구관습개혁론, 1920년대 초반의 문화운동론, 1920년대 중반 이후 1930년대 초반 사이의 자치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족주의의 논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모두 ‘준비론’과 ‘실력양성운동론’이다(윤건차 1987; 박찬승 1992). 즉 아직까지 조선의 인민은 주체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계몽의 대상에 머물

3) 그린필드(Greenfield 1992, 18)는 민족주의를 근대성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민족주의가 근대성을 규정하였다고 본다. 겔너(Gellner 1983)는 민족주의가 근대화의 과정에 어떻게 필연적으로 작동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많은 근대주의적 관점 역시 민족주의와 근대성의 관계를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준다. 한반도의 역사 역시 민족주의와 근대성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러 있다고 간주된 것이다. 물론 독립협회의 논의 속에서 자유 민권을 주장함으로써 근대적 개혁의 민족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나, 안창호 등의 실력양성론, 인격수양론 등에서 개인의 독립사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논의들 역시 민족이라는 거대 주체형성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존재하였다.⁴⁾ 그리고 문명화된 개인들로 구성된 민족을 통한 국가의 독립이라는 과제가 설정되었다. 서구에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개의 불균등한 과정 즉, 국가건설 과정과 국민형성 과정이 프랑스 혁명 등과 같은 특정한 계기를 통해 결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를 설정하였다. 조선의 경우 국가의 건설과정이 식민지화를 통해 단절되면서, 네이션의 형성과정이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제 시기 독립운동을 주도한 이념들은 서구 문명론과 사회진화론의 공유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주의를 공통의 토대로 가지고 있었다. 많은 이데올로기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는 2차적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 모두에게 공유되었다.⁵⁾ 이것은 또한 개화기의 연장선상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일제 시기 조선에서 독립 운동을 주도했던 안창호의 경우 그의 자유주의는 민족주의에 의해 지배된 자유주의였다. 도산에게 개인 개념은 철저하게 민족에 흡입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논리로 분석된다. 즉 민족의 정체성은 개인의 자유의 절대적 부분이 되고 있다(장동진 2005, 50).⁶⁾ 일제 총독부에 의해 진행되는 근대적 인간의 형성 작업

4) 한말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의 부르조아의 허약성 속에서 부르조아는 독립보다는 근대화에 우선성을 두고 있었다. 근대화 우선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제국주의와 동일한 논리를 전개하도록 하였고, 제국주의 침략이 우리 자체의 잘못이라는 논리로 이어졌다(서중석 1995).

5) 사회주의 문인들 역시 ‘민족적 공산주의자’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프로문학은 잠재적 국민문학으로 간주된다(손유경 2012, 64-65). 따라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배타적 대립이라는 기존의 문학사적 구도가 허구적임이 실제 작품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다(김성수 2004, 74-78). 또한 대표적 공산주의자인 박헌영 역시 민족주의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금인숙 2010).

6) 반면 정(情)적 요소에 대한 강조를 통해 자아중심적 근대적 인간관을 보였던 이광수의 경우 공적인 문제 즉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부차화하였다. 이광수의 문학적 기획은 ‘자율적 개인 만들기’로 집약되며, 민족은 그러한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었다(하정일 2009; 한수영 2009). 이광수의 자유주의의 경우 친일적 민족개조론으로 전환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오히려 이광수 그리고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흐름에 있었던 나혜석과 같은 경우가 민족문제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근대적 개인 주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형성하였다(이상경 1999; 서재원 2005).

을 보자. 일제의 작업은 식민지통치에 적합한 인간을 만들어내려는 작업이었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 이후 국가권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식민지총독부였고, 그들에 의한 자본주의 발전과 그에 적합한 식민지인들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된다. 일제는 식민지통치와 함께 한반도를 일본자본주의에 적합한 자본주의적 길을 걷게 한다. 그와 함께 그러한 자본주의에 적합한 인간, 고등교육이 아닌 초보적인 수준의 경제적 역할을 담당할 근대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식민지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것이 주체 형성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는 ‘식민지근대’의 모습일 것이다.

한반도에서 근대의 모습은 주체적인 형성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방향지워진다. 특히 1930년대 일본에 급속히 등장한 국가주의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이 파시즘 체제에 들어서면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사상통제, 황민화정책 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37년 「황국신민서사」가 제정되었으며, 1938년에는 일본어 상용과 조선어 교육 폐지 조치, 1940년에는 창씨개명과 총독부기관지인 『매일신보』를 제외한 모든 조선어신문의 폐간, 신사참배의 강요 등이 이루어졌다. 1939년 친일 문인들은 조선문인협회를 통해 친일문학 활동을 벌였고,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 국가주의, 국민주의를 찬양하였다. 이 시기 이광수는 개인이라는 완전히 독립된 개체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보편화된 인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실로 민족과 국민뿐”이라고 보았다(박찬승 2007, 339).

해방과 함께 네이션에 의한 민주주의의 형성과 국가건설의 과정의 길이 열렸다.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저항적 주체와 일상의 근대적 개인이라는 분리된 과정이 민주주의적 국가건설의 과정 속에서 결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1945년에서 제1공화국이 선언되는 1948년까지 3년 동안의 시간은 한국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정치의 시간이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억제 뒤를 따르는 맑은 공기”(Cumings 1986, 107)와 같은 것이었다. 억압받는 저항의 주체에서 민주주의적 주체로의 전과정이 실험되었다. 전국에 걸쳐 형성된 인민위원회와 농민위원회의 활동은 정치적 자유, 무엇보다도 그것은 근대인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스스로 공동체의 주인이고자 했던 경험이었다.⁷⁾ 역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듯이 아래로부터의

7) 이 시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건국준비위원회이며, 이후 안재홍의 신간회 계열이 탈퇴함으로써 범죄파적인 성격으로 변화해 간다.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재편된 후 각 지역에서 인민위원회 활동들은 대중의 정치활동이었음에 분명하다(Cumings 1986). 이후 미군정에 의해

정치적 실험은 다시 한 번 외세의 압력에 의해 제압되었다. 이 시기 역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와 같이 한반도에서의 제국주의(혹은 외세)의 규정력은 압도적이다. 비록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냉전질서의 과도한 무게는 한반도 내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의 주체였던 민족으로 하여금 스스로 국가의 건설과정을 주도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는 시기의 역사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로 분단된 두 개의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이라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출발점을 형성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개항 이후 근대화의 길에 접어들면서 형성된 네이션이 스스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외부 세력—냉전 시대의 개막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국제질서의 힘—에 의해 두 개의 분단 국가를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두 개의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간 하나의 주체로 형성된 네이션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었다는 점이다.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함으로써 근대의 길에 들어선 조선 민족이 하나의 국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민국가로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것은 개항 이후 주어졌던 기회가 일본에 의해 좌절된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기회가 무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단과 함께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민국가가 성립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네이션은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단절된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서 형성된 두 개의 국가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결국 이데올로기적으로 반쪽짜리의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남한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부과’된다. 하지만 ‘서구적인 민주주의 도입의 의미는 서구 역사의 민주주의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적 민주주의의 부과였다’는 의미에서 ‘조숙한 민주주의’라는 판단하는 것은 20세기 초반 근대화의 초창기에 등장했던 ‘준비론’이나 ‘실력양성론’의 또 다른 연장에 다름 아니다(최장집 1996; 박명림 1996, 116; 박찬표 1997).⁸⁾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간에 형성된 저항적 주체로서 네이션이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정치사회적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형성시키는 것이 차단되면서 외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이다.

인공과 인민위원회의 ‘진보적 대안국가’는 ‘반공국가’로 역전된다(정해구 2001, 101-114).

8) 한반도에서 민주주의 및 민주공화주의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노력은 1898년의 만민공동회,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등에서 찾을 수 있다(서희경 2012). 그리고 그러한 사상적 고민과 운동이 제헌헌법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이후 반공주의적 그리고 파시즘적 정치과정은 그러한 노력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III. 제3세계 파시즘 이데올로기로서 일민주의

제1공화국과 이승만의 통치이념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토통일 등과 더불어 일민주의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일민주의는 논리적 구조를 갖춘 체계적인 이념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된 정치적 방안 중의 하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수자 2004, 4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민주의’는 제1공화국에서 내이션을 호명하고 만드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내용이자 장치였다.

1. 일민주의의 확장 그 형태

이승만(1949, 4)은 일민주의를 제창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신흥국가의 국시(國是)”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정치권 내부에서 합의되지도 않은 자기의 주장이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거나 이론으로서의 논리적 정합성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일민주의는 이승만 자신의 권력기반이 취약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곤란을 피하고자 하는 상황의 산물로서 탄생하였다.

이승만이 귀국 직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한 것은 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였고, 이후 반탁투쟁총동원회와 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이승만의 주요한 정치조직이었다. 이승만은 1948년 5·10 선거 이후 활발한 정당결성 운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부수립 전에 정당을 조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당운동을 정지하고 대동단결하여 국권회복과 정부수립에 힘쓰자고 주장하였다(김수자 2005b, 33). 이승만은 독촉을 중심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하였고, 국민적 지도자로 남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승만은 헌법제정과 국무총리 임명과정에서 기존 정치세력과 대립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당 결성을 추진하였다. 이승만이 구상한 정당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중심으로 지방출신 의원들과 청년단체들을 합류시키고 이와 함께 국무위원들을 결합하여 여당으로 탄생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결성된 대한국민당은 1948년 10월 9일 정강과 당시(黨是)를 발표하였는데, 당시는 바로 ‘일민주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강은, “1. 우리는 계급과 지역과 성별을 초월하여 민족완전통일로 자주독립의 국권신장을 기함; 2. 우리는 정치·경제·교육

등 각 방면에 있어 국민균등의 복리증진을 기함”이라고 제시하였다.

기존에 정당무용론과 초당파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이승만이 대한국민당을 만들면서 입장의 변화를 보였지만, 가능한 한 자신이 만든 정당이 국민의 유일당, 혹은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의 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민주의는 그러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순사건이 보여준 좌익 세력의 존재와 이후 대한국민당이 당세를 확장하지 못하면서 이승만은 대한국민당과 거리를 두게 된다. 이승만은 정당활동보다는 전국적인 국민운동 단체의 강화에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1949년 9월 ‘일민주의보급회’, ‘일민주의연구회’가 일민주의의 체계화 및 전 국민에 대한 사상적 강화와 조직적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출판매체로서 ‘일민출판사’를 설립하였고, ‘일민보’라는 주간지를 발행하였다. 일민주의보급회의 중앙 조직의 임원들은 정부 관료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국무총리인 이범석,⁹⁾ 전·현직 내무장관이었던 윤치영, 김효석, 전·현직 서울시장인 윤보선, 이기붕, 문교장관인 안호상 등이 그들이다. 그리고 시군구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은 군수나 구청장 등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사회단체의 임원이나 동장 등이 맡았다. 이러한 지방조직의 확장을 통한 일민주의의 보급에 앞장선 사람은 바로 안호상이다. 이승만은 일민주의 보급회가 일민주의를 정치운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상, 계몽운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강조하였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대한국민당의 총재로서 권력기반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부의 상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것과 결부된다. 이승만은 일민주의를 표방하면서 사심과 당파성을 비난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한 것이다(김수자 2004, 454).

이처럼 일민주의가 하나의 당파의 당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되기를 바랬던 이승만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대중단체를 통해 일민주의를 보급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대중단체가 대한국민회, 대한청년단과 같은 단체들이었다.

일민주의의 체계화와 보급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과 실질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안호상이었다. 초대 문교부장관이었던 안호상은 먼저 ‘교육계의 숙청작업’을 실시하

9) 1946년 민족청년단을 창설한 이범석은 대표적인 국가지상주의, 민족지상주의자였다. 족정의 실제 이념을 드러낸 단지(團旨)에 따르면 첫째는 민족지상과 국가지상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후지이 다케시 2012, 147).

였다. 안호상은 학원내 순수화에 뜻을 두고 전국 교원에 대한 사상정향을 조사하였으며, 여순사건을 계기로 초등교원 3만 5천명, 중등교원 7,900명, 사범교원 3,200명, 전문대학교원 560명, 총 5만 천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전면적인 숙청을 단행하였다(연정은 2003, 27). 교육계의 숙청작업은 좌익 계열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에게까지도 확대된 폭압적인 행위였다. 또한 안호상은 일민주의 교육 이념의 확립을 위해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 중요한 행위는 바로 학생들을 군인으로 양성하는 학도호국단의 결성이었다. 안호상은 여순사건 이후 전국을 국가비상시국으로 단정하고 중등이상의 학생을 중심으로 한 향토방위와 학생 개개인의 민족정신 양성, 조직력, 복종력, 정신 등을 기르는 차원에서 학도호국단 결성을 결정하였다(연정은 2003, 32). 학도호국단 활동의 정치적 슬로건은 ‘민족주의 사상의 통일’이었고, 대통령이 총재, 국무총리가 부총재, 문교장관이었던 안호상은 중앙학도호국단장이 되었다. 학도호국단은 일제 하의 ‘학생경찰’이나 히틀러의 유겐트와 비슷하였다.¹⁰⁾

이승만은 1951년 8월 25일 이후 자유당이라는 여당을 만들기 위한 「신당 조직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일민주의’의 기반 위에 노동자, 농민을 기반으로 하고 지방 조직까지 갖춘 전국적인 규모의 대중정당을 조직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박찬승 2007, 359). 하지만 자유당의 당시를 일민주의로 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미 대한국민당의 당시가 일민주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승만이 자신의 일민주의와 함께 구체적인 정치조직의 형태로 등장시킨 것은 자유당이었다. 자유당의 창당을 전후하여 제시된 자유당의 네 가지 강령, 자유당 기본강령, 자유당 선언 등을 살펴본다면, 일민주의와의 연관성을 볼 수 있다. 자유당의 4대 강령은 ① 노동자 농민의 지위를 향상한다. ② 남녀를 동등히 대우한다. ③ 지방파벌을 타파한다. ④ 민주정체를 발전한다 등으로, 마지막 네 번째 정치상 평등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을 민주정체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일민주의의 4대 강령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우남전기편찬회 1958, 147).

또한 자유당의 이념과 일민주의의 일치점 중의 하나는 유일영도자에 의한 일당정치에 대한 지향이다. 이승만은 자신이 특정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부로서의 이미지

10) 1924~29년 독일 유학을 하였던 안호상은 당시 재건된 히틀러의 유겐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반자본주의 및 반공산주의적 경향의 파시즘에 대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

를 추구하였으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창당한 후에는 자신의 정당만이 정당(正當)한 정당이고 다른 정당은 사당(私黨)으로 몰아세우면서 복수정당제를 부정하는 듯한 논리를 폈다(서중석 2005, 132-133). 자유당은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대한노총, 대한농총 등 기간단체로 하여 조직됨으로써 외형상 국민전체를 중첩해서 포섭한 국민전체의 당의 형태를 띠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조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첩되어서 국민을 포섭하고 있었다. 국민회는 18세 이상의 남녀가 모두 가입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승만은 성년 국민전체의 총재였으며, 그것과 더불어 그는 중등학교 이상의 모든 학생들이 가입하는 학도호국단, 청년들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청년단, 부녀들이 가입하는 부인회, 노동자, 농민, 어민들의 단체인 노총, 농총, 어민회의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었다(서중석 1998, 31-38). 이러한 단체들의 가입은 강제였고 회비 역시 강제로 각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들이 법률로서 규정된 것은 없었다.

자유당은 이기봉의 말처럼 “제도보다는 인물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틀 속에서 이승만이 유일영도자로서 신봉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1949년 3월 26일 이승만의 생일에는 중앙청 직원들이 오전 9시부터 광장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대통령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만세삼창을 힘차게 부르기도 하였으며, 총무처의 영으로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하였다(조은정 2009, 259). 한국전쟁 시기였던 1952년에도 ‘이대통령탄신축하’는 이어지면서, ‘대통령찬가’, ‘우리대통령과 기쁜 날’ 등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서울운동장에서는 매스게임을 비롯한 행사, 특별사면, 해외축하사절단 방문 등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1950년 7월 발행한 1,000원권은 이승만의 초상화를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1959년 동전에 이승만의 측면 얼굴을 새겨 넣었다. 전국 곳곳에는 이승만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의 초상화가 보급되었다. ‘우남’이라는 명칭을 가진 기념관(송덕관) 등의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이승만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유일영도자의 이미지와 더불어 이승만은 일찌감치 ‘국부’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양우정(1949, 46-49)은 “국가는 가족을 확대한 것”, 즉 “가정이 벌어져 부락이 되고, 부락이 촌락으로, 촌락이 고을로, 고을이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정이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틀 속에서 이승만은 나라의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승만의 국부화 사업은 단지 호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부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승만은 ‘인자한 가부장’ 또는 ‘동족을 사랑하는 위대한 애정’의 소유자로 대중에게 제시되었다(임종명 2006,

201). 즉 이승만의 다양한 활동과 모습을 언론은 국부와 영도자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국민/민족 국가의 체계화 작업을 위한 민족주의적 호명의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규율화과정이기도 하였다(임종명 2005). 즉 국부로서 이승만과 자식으로서 국민의 결연과정의 형상화였다. 하지만 이것은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망각의 강요이기도 하였다.

일민주의의 출발은 몇 개의 파편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글이었지만, 이후 다양한 전국적인 조직과 자유당이라는 핵심기구 그리고 이승만의 이상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틀을 갖추면서 한국적인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져 갔다. 그 내용의 빈약함은 다양한 장치와 상징 그리고 담론을 통해 보충되었다. 일민주의가 갖는 내용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시 강력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하였고, 지배의 방식이었다.

2. 통합과 반공의 이데올로기로서 일민주의

서구 유럽의 역사에서나 제3세계 나라들의 역사에서 나타나듯이 국민국가 건설기에 민족주의는 국민의 동원 이데올로기이자 통합 이데올로기이다. 국민을 구성하는 개개 시민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호명의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논리 속에서도 개별 나라의 특수성에 따른 민족주의 및 민족 혹은 국민 개념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흔히 알려져 있듯이 독일과 프랑스의 민족/국민 개념은 두 나라의 국민국가 건설의 길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특수성을 갖는다. 그러하듯이 한반도에서 국민국가 건설의 특수성이 가져오는 민족주의 및 민족 개념의 특수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민주의가 갖는 민족주의의 일반적인 역할과 더불어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성, 예를 들어 파시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특성 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일민주의와 관련한 대표적인 저술은 우선 1948년 10월에 발표된 이승만의 『일민주의 개술』과 1949년 4월 20일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해 설명된 「일민주의와 민족운동」이라는 방송국 연설이다. 전자에서는 경제, 정치, 지역, 남녀 평등이라는 4대 강령에 대해 설명하였고, 후자에서는 ‘반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내용은 여순사건이라는 상황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이후 1949년 9월 다시 『일민주의 개술』이라는 제목으

로 앞서의 이승만의 글과 ‘이승만투쟁사’라는 양우정의 저술이 포함된 책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이후 1949년 10월 양우정이 쓴 『이대통령 건국정치이념 - 일민주주의의 이론적 전개』와 1950년 2월과 1952년 2월에 출간된 안호상의 『일민주주의의 본바탕』과 『세계신사조론』 등이 일민주주의와 관련된 핵심적인 저술들이다. 우선 이승만이 저술한 「일민주주의 강령」, 「일민주주의 개술」, 「일민주주의 정신과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일민주주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제시된 일민주주의의 4대 강령은 계급, 지역, 성별 등을 초월한 평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민족이 하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인 민족으로서 무엇에고 또 어느 때고 둘이 있을 수가 없다. 계급이 없어야 하며 차등이 없어야 한다. 하나이거나 지역이란 무엇이며 하나이거나 남녀란 무엇이나. 우리 민족은 하나다. 국토도 하나요 정신도 하나요, 생활에도 하나요, 待遇에도 하나요 정치상, 문화상 무엇에고 하나다.”(이승만 1949, 8-9).

이때 네이션 개념은 일체에 저항하면서 형성되어온 저항적, 정치적 주체로서보다는 혈연적, 문화적 네이션 개념에 의해 정의된다. 일민주주의의 민족에 대한 정의는 네이션에 대한 근대의 중심적 개념, 즉 국민국가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개념만이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문화적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승만은 인위적 단일성을 만들고자 한다. 민족이 하나임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이승만이 이러한 하나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하나가 미처 되지 못한 바 있으면 하나를 만들어야 하고 하나를 만드는 데에 장애가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독자의一念이 일어날 때 이 하나에 위반되는 바 있거든 곧 버리라. 이 일념에서 민족이 깨어진다. 행여 분열을 가지고 일체에 더하려 말라”(이승만 1949, 9-10).

안호상은 이승만의 일민 개념을 고대사 연구 및 민족사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통해 더욱 강조하고 정당화하고자 하였다.¹¹⁾ 안호상은 일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단군시대부터 전해 내려왔으며, 이것을 이승만이 동서고금의 모든 삶의 이론들을 배우고 체험한 것에 새로운 삶의 이론을 접목시켜 만들었다고 하였다(안호상 1952(上), 99). “일민(一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호상은 ‘일민’의 의미에 유기체적인 한 백성, 한민족의 의

11) 국가철학자로서 안호상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강정민·하상복 2013; 이병수 2008: 2009; 오상무 2005). 전반적으로 안호상의 국가철학에서 국가, 민족지상주의, 반(反)개인주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

미를 부여한다. 즉 고립적인 개인들의 총합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집단적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한다고 본다. “일민의 ‘일(一)’은 한일(一)자로서 ‘하나’라는 뜻이며, 또 ‘민(民)’은 백성민(民)자로서 백가지(百種) 성씨(姓氏)들이란 말인데, 그것은 곧 여러 사람들 혹은 못(衆) 사람들이 모여서 뭉쳤다는 의미다. 못사람들의 무리로서의 백성은 아무런 서로관계(相互關係)가 없는 사람들의 떼와 무리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벌써 일정한 땅위에서 혹은 지역 안에서 모여 살며 뭉쳐 사는 사람들의 떼요 무리인 것이다. 또 이 일민(一民)의 ‘민’은 일가와 친척(親戚)과 같이 같은 한 겨레요, 한 민족(民族)이라는 뜻까지 갖고 있다”(안호상 1952(上), 99). 이로부터 “한겨레주의”, “한 백성주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일민주의는 “과거에는 조국 독립의 투쟁이론”이었으며, “현재에는 조국통일의 실현이론”이며 “미래에는 조국 발전의 유지이론”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 위상을 부여한다(안호상 1950, 24-26).

민족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접근을 통한 이해와 더불어 안호상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민족주의적 접근을 취하였다. 즉 단군이나 홍익인간, 화랑도 등을 관련지어 민주주의를 말하였고, 그것을 통해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일민주의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서구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적 민주주의는 그러한 이유에서 거부되었다. 또한 안호상(1956, 44-45)은 “한사람만이 자유롭다거나 또는 몇 사람만이 자유로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유스럽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와는 구별되는 일민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일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특정계급에게 있는 소련민주주의와 다르며, 또한 실질적으로 돈에 의해 그 참여가 제한되는 서구민주주의와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일민주주의의 특징은 주권이 국민전체(一民)에 있고 국민전체를 위한 정치를 하며, 또한 한 개인의 권리까지도 절대로 존중하는 도의의 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안호상 1953, 45-51). 하지만 일민주의적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 및 국가 중심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안호상(1950, 32-61)은 일민주의적 교육 즉 “일민주의적 민족교육”이 “당파성을 떠난” 모두에게 “같은 것”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쪼개진 백성들을 한 백성 일민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일민의 나라를 만듦이 역사의 목적이며 과제”이기 때문이다.

일민주의에 나타난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및 파시즘의 성격들의 혼재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사회를 구상하며, 자유당 창당기 문헌에 따르면 민족협동적 사회건설을 기한다고 다짐한다. 또한 독점경제 패자들의 억

압과 착취들을 물리치겠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유당의 강령에 나타난 ‘독점경제 배격’, ‘민족협동적 사회의 건설’ 등을 표방하는 것은 일민주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일민주의 개술』에서 이승만은 빈부의 격차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고, 일민주의의 이데올로그들은 사회주의에 대항하여 착취와 수탈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계급갈등 없는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하였다.¹²⁾ 이렇게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승만이 취한 노동정책을 본다면,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다. 노동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노총은 노동운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대공투쟁 등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된 우익의 동원단체로서 성격을 띠었다(서중석 1998, 55).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하였을 때, 이승만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자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을 용인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일민주의가 표방한 반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구호들은 20세기 전반기 유럽의 파시즘이 보였던 반자본주의적 구호였을 뿐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조치들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이승만의 일민주의는 반공주의와 결합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실질적으로 이승만 시기 일민주의는 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국민의 동원방식을 보여주는 예 중의 하나이다. 이승만은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반공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 반공주의를 표명한 것은 1941년 출간된 『일본내막기(*Japan Inside Out*)』에서였다. 그리고 그의 반공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신탁통치 문제가 불거지고 좌익이 찬탁의 입장으로 돌아서면서부터였다(전재호 2012, 147-149).

제1공화국에서 반공주의 및 반공주의에 입각한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49년 6월 이후 반민특위 습격 사건 및 국회프락치 사건 그리고 김구 암살사건 등을 거치

12) 후지이 다케시(2012)는 일민주의를 형성시키고 확산,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은 한 이범석의 족청계의 이데올로기가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 위치했다고 평가한다. 국가지상, 민족지상이라는 구호, 노동자보호, 국방력 강화 등의 논리가 1930년대 맹위를 떨친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것이지만, 그들의 반공주의는 미국이 생각하는 반공주의라기보다는 제3세계 즉 주변부의 민족주의였다는 점에서 제3세계주의로 보고 있다. 특히 양우정(1949, 236-243)의 논리 속에서 민족전체의 복리와 행복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성향, 약소민족의 입장에서 경제적 제국주의라는 이름의 신식민주의 비판 등이 제3세계주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3세계주의라고 불릴만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승만 정부의 정책 속에서 구체화되었거나 시도되었는가이다. 구체적인 반공주의 정책과 노선이 분명하지만, 제3세계주의라고 불릴만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면서부터였다(서중석 1996, 201-285). 이것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정치권 내의 다양한 사고들에 대한 배제와 탄압의 시작임을 말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작동의 중지였다. 그와 함께 이승만은 국민회, 대한청년단, 학도호국단 등을 통해 전 국민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통합,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당시 국내 최대 신문인 『서울신문』을 폐간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기사 게재 금지사항 7개 항을 발표하였다. 그 7개 항은 ① 대한민국의 국시·국책에 위반되는 기사, ② 대한민국정부를 모해하는 기사, ③ 공산당과 이북괴뢰정권을 인정 내지 옹호하는 기사, ④ 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⑤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기사, ⑥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양·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⑦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등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언론통제 나아가 사회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52년 5월의 부산정치파동은 이승만 일인 통치체제의 확립을 의미하였다. 이승만은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헌정질서를 중단시켰고, 이후 미국의 지원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도입하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8월 5일 시행된 선거에서 이승만은 74.6%를 획득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이승만은 1960년까지 한국사회에서 보나파르트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다(김일영 2010, 201).¹³⁾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대통령 중임 철폐를 성취하면서 장기집권의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1958년 1월의 진보당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그 존재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해 11월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언론과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단일한 정치체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1959년 이승만 정권에 대해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읍·면장을 중앙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화하면서 통치와 동원에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만들었다.

일민주의에서 일민의 “동일성과 통일성은 생명”이며 “동일성과 통일성은 일민주의의 주장이며 목적”이라고 간주된다(안호상 1950, 30). 따라서 반공주의는 민족의 단일성

13) 박명림(1998, 103)은 이승만이 “대의제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전형적인 국민투표주의자였다”고 평가한다. 의회를 우회하면서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제2제정의 루이 나폴레옹과 유사하였다. “plébiscitaire”는 인민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 및 신임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특정사안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referendum)와는 차별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회를 무시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으로서 ‘일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였다. 즉 ‘일민’을 만들기 위해 ‘불순물’로 간주된 것들에 대한 배제와 제거, 억압은 이승만의 경찰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이후 일민주의보다는 반공주의가 앞서서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민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지상, 국가지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주의적 성향은 반공주의와 더불어 더욱 강화된다.

IV. 일민주의와 제3세계 민족주의의 특수성

일민주의의 이론적 내용이나 철학적 깊이 등을 본다면 매우 영성한 이데올로기이다. 하지만 일민주의를 작동시킨 전국적인 조직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우상화 작업을 통해 일민주의를 흔히들 말하는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모습으로 만들어 냈다. 동질성이 강조된 일민으로서 민족과 우상화된 영도자 이승만이 결국 동일시(identification)의 과정을 통해 단일체로 만들어간 것은 서구에서 보였던 전체주의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20세기 전반 유럽의 각국에서는 극우 파시즘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였고, 그 나라들 중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아렌트(Arendt 2006(II))의 분석처럼, 영국과 프랑스 보다 국민국가 발전의 길에 늦게 들어선 두 나라에서 시민계층의 불완전한 형성과 미발달이 파시즘의 확산을 가져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¹⁴⁾ 한국 역시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민족 개념의 과잉과 개인 및 개인주의의 미발달에 기인한 시민계층의 취약은 한국적 파시즘의 토양일 수 있었다. 아직까지 민주주의적 주체로 성장하지 못했거나 혹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피의 억압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기에 이승만은 국민을 대상화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고, 일민주의는 그 과정에서 탄생한 희화적이고 몰역사적인 이데올로기였다. 이승만 시기 국가권력은 네이션을 동원하고 통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국가권력에 의한 네이션의 선점 현상은 네이션 자체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수성을 반영시키게 하였다. 네이션을 구성하는 시민 혹은 개인은

14) 배링턴 무어 역시 ‘부르조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라는 헛듯이 근대적 민주주의의 형성에서 부르조아는 불가피한 존재였다(Moore 1985).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배치된 네이션 구도 속에 재배치되었다. 따라서 네이션에 대한 국가권력의 우선성과 함께 개인에 대한 네이션의 우선성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개인은 국가권력의 총체적인 배치전략 속에 위치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전락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네이션의 과잉과 개인의 과소 혹은 부재라는 특성이 식민지를 경험한 민족주의의 보편적 특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제1공화국 시기의 중도파의 민족주의적 경향¹⁵⁾과 이승만의 민족주의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¹⁶⁾ 조소앙, 안재홍, 조봉암 등의 민족주의자들은 중도우파로 분류되면서 사회주의 계열이나 극우의 민족주의와는 구별된다. 특히 김구 암살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이전 시기는 중도 우파 민족주의가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1950년 5월 30일 선거를 통해 정치세력화되면서 민주주의적 정치질서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였다.¹⁷⁾ 예를 들어 안재홍은 서구적 근대가 추구한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등의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민족주의론 속에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그는 국수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민주주의’ 및 ‘신민족주의’를 제시하였다(안재홍 1945; 박한용 2000). 물론 중도우파의 민족주의 역시 민족을 유기체로 파악하고 개인을 그 구성분자로 간주하였다는 점은 식민지 경험의 민족주의의 공유지점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민족의 독립과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정영훈 2004, 16).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민족이라는 전체에 대한 강조, 유기체적 특성의 강조 등은 한반도에서 민족주의의 일반적 특성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오히려 서구적 자유주의를 특성을 강하게 지녔던 윤치호의 경우 인

15) 해방 이후 시기 중도우파 민족주의자들은 일제 시기에 자치론을 거부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의 민족연합전선론을 통해 신간회 창립을 주도한 민족주의 좌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성주현 2012).

16) 물론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경험을 가진 다양한 나라들의 민족주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승만과 유사한 시기의 다른 민족주의적 경향, 특히 중도 우파의 민족주의 경향과의 비교에 한정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헌영과 같은 사회주의자들 역시 민족주의의 틀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대 남한사회의 민족주의라는 측면에 한정하도록 하자.

17) 서중석(1996, 321)은 만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극우반공체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이들 중도세력들에 의해 견제되는 비교적 다원적이고 공간이 확대된 정치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을 보였다(정용화 2006). 그러한 의미에서 윤치호는 한반도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친일파일 뿐이었다. 개인보다는 민족에 대한 강조는 식민지적 상황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우파의 민족주의가 이승만의 민족주의와 구별되는 것은 민족주의의 내용적 측면이다. 민족주의를 2차적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민족주의의 내용, 즉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1차적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나 안재홍의 다사리 국가 등은 그들의 민족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견 사회민주주의적 체제와 유사한 사회경제체제와 결합하고 있다. 조봉암의 ‘조선적인 민주주의사회’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것 역시 그의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원칙과 내용이 사회민주주의적임을 말하고 있다(서중석 2000).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중도우파의 민족주의는 이승만의 민족주의가 반공주의 그리고 그의 반노동자적 성격 등과 결합한 점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식민지경험을 거친 한반도에서 민족의 절대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어떠한 이념들과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경제체제를 구성하느냐의 문제와 결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도우파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주의의 실현 계기들로 제시한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의 가치들은 민족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내재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강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내재적 노력은 식민지 경험의 민족주의가 가지는 전체에 대한 강조를 약화시키면서 결국은 민족주의의 한계 자체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제1공화국의 통치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일민주의’는 그 원칙과 작동에 있어서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식민지 경험의 민족주의가 갖는 전체에 대한 강조를 강화시키면서 파시즘적 경향으로 흐른 것이다. 일민주의의 등장의 시점 즉 여순사건, 반민특위 사건 그리고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강화되는 반공주의 등을 본다면, 일민주의는 남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는 상황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일제와의 투쟁 및 그들의 지배 속에서 확립된 민족지상 및 국가지상주의적 사고—반일독립운동에서이든 친일이든 일정하게 공유한 부분이다—가 결합하고 또한 이승만 개인의 이상화 등과 결합하면서 일민주의는 파시즘적 이데올로기로 전환·강화된 것이다. ‘일민’이라는 틀 속에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

이었고, 반공이라는 목표 속에서 어떠한 불순물도 ‘일민’을 구성하는 데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이승만 개인에 대한 우상화와 강력한 공권력으로서 경찰은 일민주의가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국가장치였다. 당시 경찰 권력은 언론통제, 반공 주의자 색출 등 이질적인 사고의 제거를 통해 정화(purification) 작업을 주도하였다.¹⁸⁾

이후 박정희 정권의 경우 개발독재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경제이데올로기를 통해 국민을 동원했던 체제였다.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국민총화론, 총화단결론’을 내세웠고,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동원하였다. 따라서 식민지 경험을 통해 드러났던 네이션을 구성하는 개인의 미약함이라는 문제는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자주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권력이 네이션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까닭에, 즉 민족주의의 원칙과 내용으로서 민주주의의 부재 속에서 국가권력은 네이션을 압도하면서 네이션의 정치적 성장을 가로 막았다. 남한의 경험에서 네이션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의 주체로서 설정되고, 박정희 시기에는 이에 덧붙여 개발의 주체로서 설정된다.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주체로서 네이션이 형성되기 시작한 이래 그 구성원들은 항상 전체로서 네이션의 구도 속에 배치된다.¹⁹⁾ 개인에 대한 네이션의 우위가 근대 초기 이래 일차적인 현상이었다면, 이차적으로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네이션의 독점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가권력의 비정상적인 우위로 나타난다. 정치적 공동체로서 네이션이 선언되지만 국민국가 건설의 초기 단계에서 네이션은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자리매김되지 못하였다.²⁰⁾ 결국 식민지경험을 통해 형성된 제3세

18) 일인통치, 사회적 단일성, 국가와 인민의 일치 그리고 지도자 및 정치체의 단일성, 비밀경찰 등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두 체제에 공통적인 전체주의의 공통된 특징이었다(Arendt 2006; Lefort 1976).

19) 손호철·김윤철(2003)은 해방 이후 한국정치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국가주의(statism)를 들고 있다. ‘시민사회에 대해 국가가 힘의 우위와 주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국가주의로 정의하면서 그 기원을 식민지 유산으로서 과대성장국가, 한국전쟁, 국가주도형 산업화를 들고 있다. 일견 타당하지만, 이러한 강한 국가주의는 한국에서의 내셔널리즘과의 연관 속에서, 즉 근대형성기부터 그 연원을 찾을 필요가 있다.

20) 해방 직후 좌우대립의 과정에서 ‘민족’은 시대정신이었지만,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은 구시대의 퇴물로서 취급된다. 1950년대는 이승만의 일민주의와는 다른 방향 속에서 사회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등장한다. 특히 자유의 가치에 대한 옹호, 인간이라는 추상의 발견, 부조리로서의 세계 폭로 등 1950년대 한국의 실존주의가 우파적 계기들과 결합하였다(권보드레·천정환 2012, 6, 10장).

계 민족주의가 내재적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할 민주주의적 장치와 운동을 포섭해 내지 못한다면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V. 글을 나가면서

민주주의는 일정 의미의 제도적 형식이나 절차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운동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치와 억압의 대상으로 남기를 거부하면서 저항적 주체로서 존재해 왔던 네이션이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국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확립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주권자로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저항의 주체에서 정치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스스로를 확립시키는 과정은 한반도에서 근대와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과잉 속에서 내부적 균열과 차이들이 봉합되었던 점을 지적해야 한다. 외부적 계기들에 의한 국가권력의 확립과 그들에 의한 네이션의 억압은 단일한 네이션을 상정하게 하였고, 그것은 곧 네이션 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선택적 봉합으로 이어져 왔다. 네이션을 구성하는 개인들은 일정하게 설정된 목표를 위해 방향지워진 네이션 혹은 민주화세력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들의 개인성의 발달보다는 그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체현하도록 규정되었다. 해방 이후 사회에서 반공주의와 개발 이데올로기, 민주화 이데올로기 등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상이한 저항성을 지닌 이데올로기 및 이데올로기 집단의 발달을 저지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반공주체, 개발주체 혹은 민주화의 주체로서 동원되었던 개인들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경쟁주체에 한정되려 하지 않는다. 특히 90년대 이후 ‘신세대’ 문화의 확산과정의 이면에 내재한 개인적 삶의 질 향상 및 자율적 삶의 자기조직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등의 확대를 통해 나타나는 ‘욕망의 정치’라는 새로운 변수를 작동시키면서 좌/우 이데올로기의 선형적 스펙트럼에 변형을 가하고 있다. 이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과잉 속에서 상정되고 호명되었던 거대한 단일주체는 개인의 욕망과 의지에 기반한 다양한 권리의 주체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가치와 덕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다만 지난 시기 있었던 공동체의 과잉이나 개인의 과잉이 아닌 그 사이의 어느 지점을 찾아야

한다.

투고일: 2015년 8월 23일
심사일: 2015년 9월 4일
게재확정일: 2015년 10월 7일

참고문헌

- 강정인·하상복, 2013. “안호상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체와 동일성의 절대화.” 『인간, 환경, 미래』 10호, 119-149.
- 권보드래·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서울: 천년의 상상.
- 권혁범, 2000.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솔.
- 금인숙, 2010.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이념체계. 박헌영의 맑스주의 혁명이념 중심으로.” 『한국민족주의와 변혁적 이념체계』, 141-207. 서울: 나남.
- 김동택, 2003. “『국민수지』를 통해 본 근대 ‘국민.’” 이화여대 한국문화원. 『대동문화연구』 44호, 243-267.
- 김성수, 2004.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문학에 나타난 민족 및 국가주의.” 『민족문학사연구』 24호, 68-94.
- 김수자, 2004. “이승만의 一民主義의 제창과 논리.” 『韓國思想史學』 22집, 437-471.
- _____. 2005a. “1948~1953년 이승만의 권력강화와 국민회 활용.” 『역사와 현실』 55호, 347-379.
- _____. 2005b. 『이승만의 집권초기 권력기반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김영작, 2006. “한국민족주의의 전체상: 사상사적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김영작 편. 『한국 내셔널리즘의 전개와 글로벌리즘』, 15-55. 서울: 백산서당.
- 김일영, 2010. 『건국과 부국』. 서울: 기파랑.
- 김혜수, 1995.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 정권의 통치이념 정립과정.” 『이대사원』 28호, 317-352.
- 박노자, 2005. 『우승 열패의 신화』. 서울: 한겨레출판.
- 박명림, 1996. “한국의 국가 형성, 1945~48.” 이우진·김성주 공편. 『현대한국정치론』, 97-137. 서울: 사회비평사.
- _____. 1998. “195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 72-127. 서울: 역사비평사.
- 박주원. 2004. “‘독립신문’과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탄생.” 이화여대 한국문화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127-165. 서울: 소명출판.
- 박찬승. 1992. 『한국근대 정치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2007. 『민족주의의 시대 - 일제하 한국 민족주의』. 서울: 경인문화사.
- 박찬표. 199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한용. 2000. “안재홍의 민족주의론.” 『韓國史學報』 9호, 97-131.
- 서재원. 2005. “나혜석 문학연구 - 근대적 여성주체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5권, 207-225.
- 서중석. 1995. “한국에서의 민족문제와 국가.” 한국사연구회 편. 『근대국민국가와 민족문제』, 111-150. 서울: 지식산업사.
- _____. 1996. 『한국현대 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1998. “이승만정권 초기의 일민주의와 파시즘.”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17-71.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2000. 『조봉암과 1950년대』 上, 下.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2005.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 서희경. 2012.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서울: 창비.
- 성주현. 2012. “신간회 운동과 민족주의 좌파 세력.”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편. 『안재홍과 신간회의 민족운동』, 109-145. 서울: 선인.
- 손유경. 2012. 『프로문학의 감성구조』. 서울: 소명출판.
- 손호철·김윤철. 2003. “국가주의 지배담론 - ‘일민주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론’까지.”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서울: 함께 읽는 책.
- 신기욱. 2009. 『한국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237-292. 서울: 창비.
- 안재홍. 1945.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서울: 민우사.
- 안호상. 1950. 『일민주의의 본바탕』. 서울: 일민주의연구원.
- _____. 1952. 『世界新思潮論』 上, 中. 부산: 일민주의보급회총본부.
- _____. 1953. 『민주주의의 역사와 종류』. 서울: 일민출판사.
- _____. 1956. “일민주의와 민주주의.” 『화랑의 혈맥』, 44-49. 화랑도보급회중앙총본부.
- 양우정. 1949. 『이대통령 건국정치이념 - 일민주의의 이론적 전개』. 서울: 연합신문사.
- 연정은. 2003. “안호상의 일민주의와 정치·교육 활동.” 『역사연구』 12호, 7-38.
- 오상무. 2005. “현대 한국의 국가철학: 안호상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36집, 71-96.
- 우남전기편찬회 편. 1958. 『우남노선』. 서울: 명세당.
- 윤건차. 1987. 『한국근대의 교육과 사상』. 서울: 청사.

- 이병수, 2008. “문화적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본 안호상과 박종홍의 철학.” 『시대와 철학』 19권 2호, 169-201.
- _____. 2009. “문화적 민족주의와 현대 한국철학 - 고희곤, 박종홍, 안호상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47집, 95-115.
- 이상경, 1999. “나해석: 한 페미니스트 자유혼의 패배.” 『자유라는 화두』, 125-154. 서울: 삼인.
- 이승만, 1949. 『일민주의 概述』, 서울: 일민주의보급회.
- 이재석, 2006. “척사위정사상과 내셔널리즘.” 김영작 편. 『한국내셔널리즘의 전개와 글로벌리즘』, 163-193. 서울: 백산서당.
- 임중명, 2005. “제1공화국 초기 대한민국의 가족국가화와 內破.” 『韓國史研究』 130호, 267-311.
- _____. 2006. “이승만대통령의 두 개의 이미지.” 『한국사시민강좌』 38, 197-229. 서울: 일조각.
-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 장동진, 2005. “식민지에서의 ‘개인’, ‘사회’, ‘민족’의 관념과 자유주의: 안창호의 정치적 민족주의와 이광수의 문화적 민족주의.” 『한국철학논집』 16집, 41-70.
- 전재호, 2012. “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적 성격 - 식민지적 기원과 해방 직후의 전개양상.”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29-166. 서울: 책세상.
- 정영훈, 2004. “통일지향 민족주의의 정치사상 - 해방 후 중도우파 세력의 통일국가 수립 노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7권, 3-37.
- 정용화, 2006.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 『한국정치학회보』 40집 1호, 5-23.
- 정해구, 2001.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조희연 편.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93-137. 서울: 나눔의 집.
- 조은정, 2009. 『권력과 미술.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 서울: 아카넷.
-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눔.
- 하정일, 2009. “자율적 개인과 부르조아 결사로서의 민족.”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이광수 문학의 재인식』, 146-168. 서울: 소명출판.
- 한수영, 2009. “이광수 소설에서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체.”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이광수 문학의 재인식』, 169-196. 서울: 소명출판.
- 후지이 다케시(藤井たけし), 2012.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 족정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 8년사』, 서울: 역사비평사.
- Arendt, Hannah, 박미애 역, 2006. 『전체주의의 기원』 I, II. 서울: 한길사.
- Cummings, Bruce, 1986. 『한국전쟁의 기원』 1권. 서울: 일조각.

- Duncan, John, 1998. “Proto-nationalism in Premodern Korea.” In Sang-Oak Lee and Duk-Soo Park, eds. *Perspectives on Korea*, 199-221. Sydney: Wild Peony.
-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 Greenfield, Liah. 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Harvard UP.
- Lefort, Claude. 1976. *Un homme trop. Réflexion sur l’archipel du Goulag*. Paris: Seuil.
- Moore, Barrington. 진덕규 역. 1985.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서울: 까치.

ABSTRACT

‘Excessive Nation’ and ‘Indiscoverable Individual’: ‘One-People Principle’ and Particularity of Korean Nationalism

Taiyoung Hong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is article is to find the particularities of Korean nationalism which is formed in the influences of colonialism, cold war and division, and for this goal, I examine the ‘One-people principle’ of Syngman Rhee in the 1st Republic. ‘One-people principle’ is a moment which shows the particularities of 1st Republic’s nationalism. And it is in the line of nationalism of colonial period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d the nationalism of Park Chung-hee in the this genealogy. One-people principle started with some fragmental and non-systematic articles, but it is formed as an Korean fascist ideology with the national organizations and Liberal Party, the idolization of Rhee. These process and form have the similarities with the totalitarianism of West in the accentuation of popular unity and the identification of people. Excessive conception of nation and under-development of individual, resulted from the colonial experience, might be the soil of Korean fascism, the weakness of citizen. The Korean citizens are not yet formed as democratic subject in the circumstances of ideological repression. Therefore, Rhee consolidated his domination by the objectivation of people, and the One-people principle was a burlesque ideology.

Keywords: one-people principle, nationalism, totalitarianism, Syngman Rhee, democracy